

“이미 부처를 이룬 그대 무엇을 좇느냐”

2010 빛고를 불교아카데미 제5강 무비 스님

빛고를 광주에 부처님 법향을 가득하게 했던 2010 빛고를 불교아카데미가 11월 24일 무비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의 <법화경> 강의를 끝으로 회향했다. '경전의 숲에서 단비를 만나다'를 주제로 광주 동구 KT 정보문화센터 대강당에서 한 달 넘게 진행된 행사의 마지막 회에서 무비 스님은 '사람이 부처님입니다'를 주제로 <법화경>을 강의했다. 다음은 무비 스님의 법문을 정리한 것이다.

부처님 인연으로 광주지역 여러분에게 대승경전 <법화경> 강의를 하게 돼 더욱 고맙고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강좌의 대주제는 '경전의 숲에서 단비를 만나다'입니다. 이 주제는 <법화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화경> 약초유품(藥草論品)은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드넓은 들판의 약초에 비유해 그 약초가 단비를 만나 흠뻑 젖고 무럭무럭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법의 단비[法雨]에 흠뻑 젖었으면 합니다. <법화경>의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바로 약초유품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처설법의 완성품 <법화경>

<법화경>은 부처님의 많은 설법을 담은 경전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의 종지는 회삼귀일(會三歸一)입니다. 삼승(三乘)을 일승(一乘)의 법으로 모두 모아 일승의 삶을 살게 하는 가르침을 회삼귀일이라고 합니다. 삼승은 교학적으로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菩薩)을 말하는데 우리의 다종,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삼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삼승뿐이었습니까? 삼백승, 삼천승, 삼만승도 되겠지요. 그와 같이 다양한 우리 삶의 모습들을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일승의 가르침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승의 가르침은 차별현상에 눈을 돌릴 것이

부처님은 누구에게 단돈 10원, 밥한 그릇 시주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진리, 인생의 참되고 바른이치를 우리에게 시주했습니다. <법화경>에는 부처님이 소중한 여긴 것 모두가 들어있습니다.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지고한 가치, 즉 누구나 평등을 갖고 있는 고귀한 그 가치에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같은 부처님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종, 다양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삶을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삶이라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 본래의 가치에 눈을 뜨라는 가르침을 바로 <법화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화경>을 '인불(人佛)사상' '사람이 곧 부처다'라는 사상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화경>에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뜻을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나는 일대사 인연, 하나의 큰 사연이 있어서 왔다"고 말합니다. 일대사 인연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의 깨달은 내용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또 다시 깨닫게 해주고 그 깨달음의 내용 속에 들어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가장 큰 사연이다"라고 표현합니다(開示悟入佛知見).

방편품, "성불이 궁극 목표"

<법화경>은 28품으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평생 의지하고, 연구하고, 읽고, 쓰기에 딱 알맞은 양의 경전입니다. <법화경> 가운데 '방편품'과 '여래수랑품'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편품'에서는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의 인격을 위대하게 보고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을 닮아가 궁극적으로 부처가 되는 것, 즉 '성불이 궁극 목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 앞에 와서, 아니 불상에 와서 절 삼배만 해도 이미 불도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또 부처님 앞에, 혹은 불상 앞에 꽃 한송이만 올려도 그것만으로 이미 불도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또 부처님 앞에 와서 고개 한 번 숙이는 것만으로 이미 성불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불이 쉬운 것입니다.

온갖 고행을 하면서 성불하려고 하지만 늘 그 자린 것을 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행본처(行行本處)로 지지발처(至至發處)라.' 즉 '어떤 수행을 하든, 아무리 행하고 행해야 항상 본래의 장소다'라는 것이죠. 참선을 아주 최고급 수행이라고 합니다. 최고급 수행을 삼십년간 일종직에 정좌불와

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설사 목적이 이르렀다 하더라도 출발한 그 장소입니다. 어디서 출발했죠? 사람으로 출발했죠? 사람으로 출발해서 사람의 출발 장소에 이른 겁니다. 이 사실 아는 것 이외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개가 완전무결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불, 수행, 도인, 보살, 선지식, 나한, 이런 이름들을 경전과 법문 속에서 많이 들어서 그런 이름들이 실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방편으로 이름을 지었을 뿐 실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어놓은 이름일 뿐입니다. 그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불교에서는 온갖 조건을 붙여 성불을 이야기 하고, 별별 과정을 거쳐야 성불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은 전양지자로 다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대승불교운동의 선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인 당신을 존경합니다

<법화경> 제바달다품에는 극악무도한 사람 제바달다가 나옵니다. 그는 부처님에 대한 복수심과 원한을 가득 품고 출가 합니다. 출가해서도 원한을 버리지 못하고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여러 번 시도합니다. <법화경>은 제바달다의 모든 원한을 일시에 풀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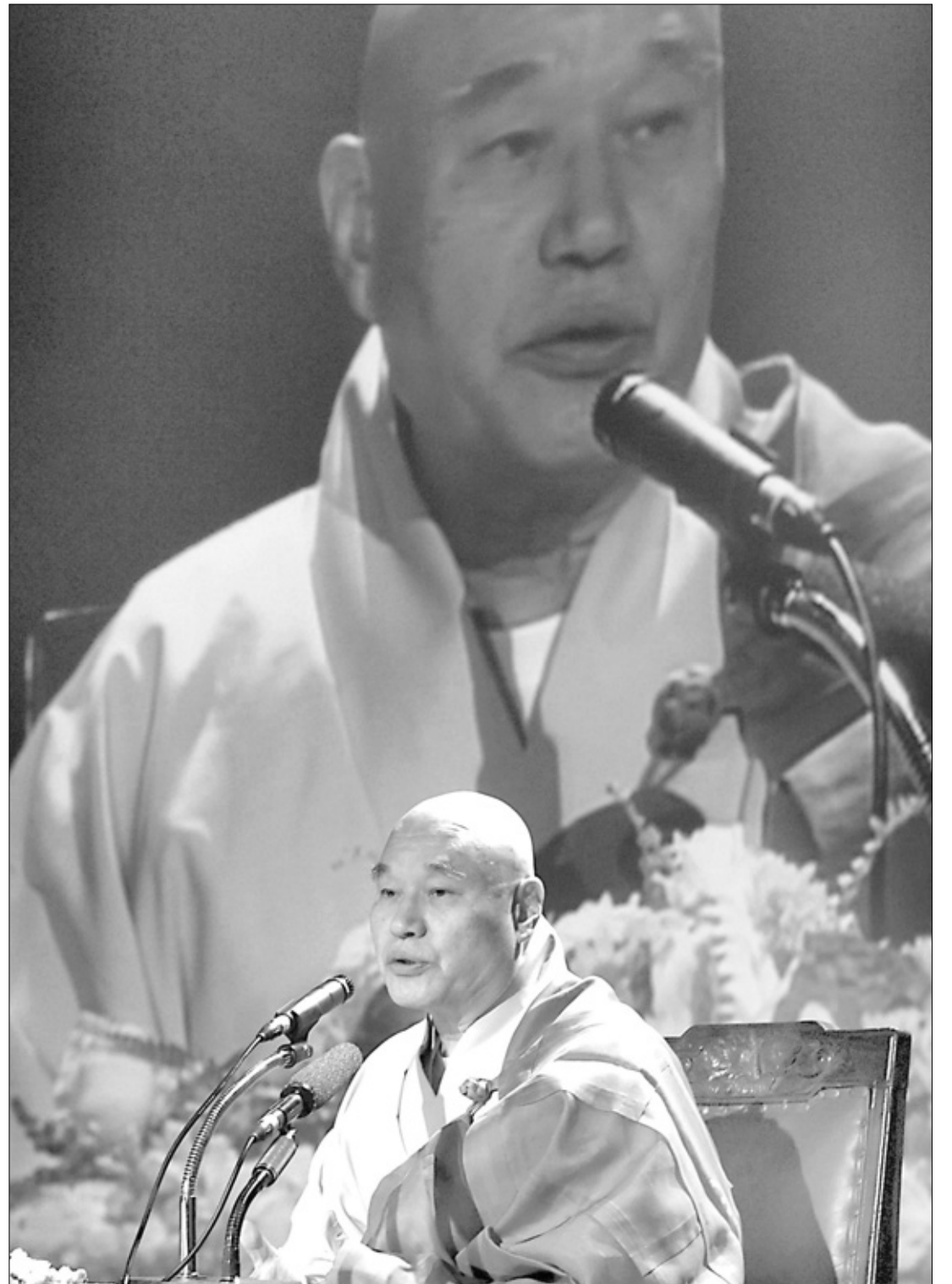
부처님은 "과거에 수행하는데 있어서 훌륭한 선지식을 찾고 있었다. 때 마침 나타나서 나를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제바달다다. 제바달다는 나의 선지식이고 나의 스승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상불경보살품에서는 상불경 보살이 이야기를 총정리합니다. 상불경 보살은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이라며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상불경 보살은 그러면 저만치 물러나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그렇더라도 나는 당신을 부처님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을 존경합니다"며 마음 담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인간에 대한 최고의 신뢰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본성을 보고 그대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모두 시주(施主)한 부처님

우리나라 명산대찰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앞에는 돈도, 음식도, 꽃, 과일이 넘쳐나게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복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나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큰 시주다" 했습니다. 부처님은 누구에게 단돈 10원, 밥한 그릇 시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내가 제일 큰 시주자라고 했을까요?

무엇을 시주했는가? 부처님은 복이 많은 제일 부자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많은 복을 시주하신 분입니다. 그 결정체가 <법화경>입니다. 진리, 참다운 이치, 인생의 참되고 바른 이치를 우리에게 시주해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이 '2010 빛고를 불교아카데미' 마지막 강좌에서 <법화경>을 강의하고 있다. 무비 스님은 <법화경>에서는 '사람이 부처이고 개개인이 소중한 존재'라고 말한다"고 했다.

주신 분이랴 물질을 시주한 것보다 천배 만 배 위대한 것입니다.

<법화경>은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고, 부처님이 아낀 것 모두입니다.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아끼고, 사랑하던 그 가르침을 통째로 우리 중생들에게 보시를 하셨으니 얼마나 큰 시주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다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시주하십시오. 부처님처럼 시주하십시오. 물질 시주도 해야 하지만, 사찰에 절도, 돈도, 불상도, 법당도 짓고 그런 장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법문도,

공부도, 참선도 하죠. 부처님처럼 시주하십시오. 우리 인간처럼 시주를 하기도 하지만 부처님처럼 법을 제대로 배워서 법을 시주하는 것이 복이 더 됩니다.

저는 근래 부처님 복을 주로 연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이 많을까? 무슨 복을 지었을까?

"부처님과 같은 대시주자가 되고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부자가 됩시다"라는 말씀으로 <법화경>을 정리하고 끝맺습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주명리 통변술을 밝힌다

무료 공개 강의

■ 일시 : 11월 27일(토) 오전 11시 - 13시
12월 4일(토) 오전 11시 - 13시

■ 과목 : 명리학, 기문둔갑, 육효, 육임, 관상수상, 타롯카드, 성명학 (무료공개 강의는 명리학 위주)

■ 대상자 중점강의 :
· 공부에 맥을 잡지 못해 고민 하시던 분
· 여러해 공부했으나 통변이 시원치 않으신 분

단기간에 일가를 이루고 싶은 분
역술업의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

■ 강사 : 전, 호서대 명리·기문학 주임교수 직강!
■ 장소 : 서울 관악구 난곡입구 사거리 씨체널 안경점 옆 흥삼대리점 안골목

정운철학원

전화: 010-7154-8835 / 011-241-9681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애!**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를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TEL 063)631-0108 / FAX 063)625-2946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각 사찰의 불사 포교용 관음도·달마도

"불자님! 관세음보살님 친견서원 세우세요" 생명구제! 해안이 열립니다.

소승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응화하여주시 큰 인연으로 佛母(행화)스님이 되어 붓으로 불법을 수행하며 영험한 불화 조성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 관세음 보살님의 신통묘력에 함께하는
- <옴나만메홍> <근불> <법륜>의 경면주사 육필 관음달마도에는 불, 보살님의 가피력이 함께합니다.

이사, 집수리, 여행, 상가방문 등 그 이후에 심하게 울고보내는 영, 유아의 머리맡에 본, 관음, 달마도를 비치하시면 바로 인정을 찾는 등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오토바이)운행중 큰 사고를 피하여 가는 등 신기한 사례들을 많은 분들이 체험합니다.

☞ 본 달마도의 용도
삼재, 액운소멸, 직업장의 안전사고 잦은 곳, 각종시험 합격기원, 위험직종 종사자, 실내의 무서움이 느껴지는 곳 ... 등

· 그림재료 : 단나무 한지에 고급염주사로 불모 스님 친필(手書) 그림

· 크 기 : 명함 사이즈(포켓, 지갑용, 액자용, 자동차살내비치용)

☞ 무하스님 약력(화력 30여년)
· 현 도법사 주지, 한국미협(국전회원) 등
· 1988년 : 서울올림픽기념미술제출품
· 1989년 : 국가무형문화재48호 만봉스님계 행화(불화)입문수련
· 1998년 7월 24일 KBS2 TV '달마도 신비'에 출연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31번지 **도 법 사**(무하) 문의: **010-5413-0556 스님단체주문 환영**

공념학당 육임수강생 모집

1. 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 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3. 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 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 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수 있습니다.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공념학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saju79.com